

'찬란한 백제문화' 생생한 콘텐츠로 만난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20~30일 '백제역사유적지구 실감형 콘텐츠 XR체험' 진행

익산시가 백제 역사를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K-콘텐츠 역사문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제왕궁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연계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실감형 콘텐츠 XR 체험'을 선보인다.

이번 체험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제작·운영하는 것으로 가상현실(VR)과 벽면 3면에 투사된 다면영상을 결합한 XR기법을 활용해 찬란한 백제 문화가 남아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생생한 입체감으로 표현했다.

특히 체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마다 다양한 게임 미션이 주어지고 이를 해결하면서 점수를 얻는 게임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관련해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와 더불어 △공주 공산성, 무령왕릉 △부여 정림사지 등 총 8종의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험 진행은 백제왕궁박물관 기획전시실의 실감형 체험관에서 현장 접수로만 이뤄진다. 가상현실 체험이 이뤄져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10분 정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백제왕궁박물관(063-859-4636, 47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연계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실감형 콘텐츠 XR체험'을 선보인다.

조봉업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원래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어 사라진 유적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타기관과 연계해 첨단 기술과 문화가치를 결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 트렌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내소사 템플스테이 참가자에 부안청자박물관 관람료 할인

부안군-내소사, 50% 할인 업무협약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천년 고찰 내소사(주지 진성)가 내소사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청자박물관의 관람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존에는 내소사 입장권을 제시한 분에 한정해 청자박물관 입장권을 할인하였으나, 내소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내소사 입장권이 없기에 청자박물관의 관람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부안군과 내소사가 이번 협약을 통해 내소사 입장권 및 템플스테이 참가자 모두에게 청자박물관 관람료 50%를 할인하게 되었다.

협약을 맺은 후 바로 10여명의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50% 관람료 할인혜택을 받고 부안청자박물관을 관람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청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하였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숨어 있는 기관·단체·체험 등을 찾아내어

관광 상품화해서 부안의 곳곳을 더 보여주고, 기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 내소사 주지스님은 "이번 협약으로 내소사 템플스테이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며 "템플스테이에 어울리는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협약을 맺어 내소사 템플스테이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청자박물관 관람료는 성인 1인이 3,000원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제1회 세대공감예술인展' 개최

고창군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오는 22일까지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지부장 한상용)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후원하는 제1회 세대공감예술인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원로작가 오강석과 청년작가 김정하 두 명의 서양화가의 만남으로 40여점의 서양화를 볼 수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

로써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선사해 고창미술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다.

오강석 작가는 '고향'을 주제로 동림저수지, 모양성, 방장산, 선운사 등 고창 천혜의 환경을 형상화해 표현했다. 그에게 고창의 자연은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는 무대이자 회귀하고자 하는 고향이다.

김정하 작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사

랑하는 딸과의 동행을 시작으로 그림과의 동행, 친구와의 동행 등 앞으로의 작가의 세상을 같이 그려갈 많은 것들을 포함한 동행을 그려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1회 세대공감예술인 전시회를 통해 지역미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격조높은 예술작품을 많은 고창군민들이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작품활동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달성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전주 온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23일 '사라 장 & 비르투오지'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3일 모악당에서 '사라 장 & 비르투오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이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클래식 미래를 이끌어갈 한국의 젊은 비르투오지로 구성된 체임버앙상블과 함께 수준 높은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3년 만에 내한해 전국투어에 나서는 사라 장은 이번 전주공연에서 비탈리의 사콘느 6단조,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 그리고 비발디의 사계 등 18세기 바로크 음악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은 사라 장의 솔로, 합주, 협주 등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비올리

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 더블베이스 스트 성민재 등 한국을 대표하는 후배 솔리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바이올린 천재 소녀'에서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우뚝선 사라 장은 1990년, 만 8세의 나이에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과의 협연으로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데뷔했고, 이듬해에는 EMI 레이블과 계약하면서 세계 최연소 레코딩 기록을 세웠다. 1995년에는 최연소 나이로 에이버리 피셔 캐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음악계에 화제를 일으켰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민예술촌, 20일 '문화다양성포럼' 개최

군산시민예술촌(박양기촌장)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군산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기념 및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속의과정'이라는 주제로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군산시 중정길 17)에서 문화다양성포럼을 개최한다. 김춘하 군장대학교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선임연구위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 Like 익산포럼 임형택 대표가 발표한다.

이날 포럼을 통해서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제언, 광주와 전남의 문화다양성, 익산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들어보고 종합토론의 시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원주문화재단 송은정 사무국장,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전승훈 사무국장, 군

산대학교 오원환교수, 송미숙 군산시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문화다양성 논의는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전후로 이루어졌다. 이 선언의 경우 2005년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110번째로 협약의 비준 국가가 되었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군산시에서도 지난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문화적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제21회 부안예술제' 성료

제21회 부안예술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복한 부안~ 예술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으로 꾸며져 지역 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부안예술문화상은 문인협회 김영자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예술인 5명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서 열린 제8회 부안 트로트 가요제에서는 12명의 본선진출자들의 열띤 경쟁 속에서 김종찬 씨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통 국가의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제17회 부안국악제'와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제27회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열렸



다.

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제28회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 회원전과 제12회 한국사민작가협회 부안지부 회원전, 한국문인협회부안지부 회원시화전, 제25회 청소년 예술제 우수작품전시회, 부안문예창작반의 시화전시회가 열려 예술제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